

한국군(軍)의 통역자원 운용에 관한 연구: 미국과 독일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 동 규 · 최 정 연
(합동참모본부)

1. 서론

한국군은 1945년 12월 군사영어학교를 설립하고 연이어 1946년 1월 남조선 국방경비대를 창설하여 외국의 문화, 교리, 전술 등을 습득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어와 영어 간 의사소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조용만과 최병욱 2015: 13). 이어 1953년 10월 1일 「한국과 미국 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이 채택되었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해 주한미군이 주둔하게 되며 군사 영어 통역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출범 초기, 한국군은 미군과의 연락을 위해 연락장교를 만들었고 이들이 통역장교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였다(ibid.: 4). 이후 한동안 통역장교라는 공식 보직이 없었으며 육군은 학군단(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이하 ROTC)과 학사장교 출신을 불규칙적으로 차출하여 통역자원으로 대체하였다. 1997년이 되어서야 공군이 통역장교를 선발하기

시작했고, 이어 2001년에 해군과 해병대, 2002년에 육군이 공식적으로 통역장교를 선발 및 배출하기 시작하였다(ibid.).

군 통역자원들은 화상회의를 포함한 각종 회의, 문서번역, 내부 행사 지원, VIP 회의, 군수 물품 구매 통역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신동현 2012: 16). 하지만 통역장교로 지원한 자원들은 의무복무기간을 채운 후 제대하는 경향이 있고 사관학교 출신들은 통역이라는 보직이 직업군인 경력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에 군사 통역에 전문적인 통역자원들이 장기적으로 양성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되었다(곽중철과 마승혜 2015: 4).

또한, 군사 통역에 관한 국내연구는 양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군사 통역의 운영, 교육 등에 관한 세부 사항도 광의의 군사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자료 공개가 조심스럽고 폐쇄적이다. 따라서 군사 통역 관련 정보 입수 및 학습 등에도 어려움이 따른다(곽중철과 마승혜 2015: 3; 이준성 2015: 12). 선행연구는 한국의 군사통역 현황과 장래 교육 방향 연구에 관한 곽중철과 마승혜(2015)의 연구, 통역장교의 평가 결과물을 바탕으로 한국의 군사통역 품질평가에 관한 박현일(2015)의 연구, 정전협정 협상 당시 통역사의 역할에 관한 페르난데스 산체스(Fernández Sanchez 2010)의 연구 등에 머무른다.

이에 이 논문은 미군과 독일군이 통역자원을 어떻게 선발 및 운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차이점과 유사성을 발견하고 우리나라에 적절한 제도를 도입하고 오류를 극복할 수 있다. 그렇기에 미국과 미군이 상주하는 독일의 통역자원 운용사례를 살펴본다. 2022년 6월 기준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은 약 36,172명으로 약 25,873명이 상주하는 주한미군과 규모가 비슷해서 적절한 비교의 대상이다(Defense Manpower Data Center 2021. 6. 30). 이를 통해 우리 군의 통역자원 운용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군사 통역의 특징과 우리 군의 통역자원

2.1 통역사의 유형분류와 군사 통역자원

통역사의 유형은 여러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곽중철

(2008)은 고용 형태에 따라서 프리랜스 통역사와 인하우스 통역사로 구분한다. 고용 형태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면, 전자의 경우 “통역 속도 및 순발력”과 같은 기술적 측면에서 인하우스 통역사보다 뛰어날 수 있지만 통역 분야의 전문성 결여 등으로 오역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곽중철 2009: 6-8). 이들은 일반적으로 고도의 능력을 갖춘 전문가로 양성되는 것이 목표이며, 통역대학원에서 통·번역 전문훈련을 받고 졸업한 자들로서 언어능력, 정보처리능력, 이문화능력, 프레젠테이션 능력 등을 교육받았다(김유나 2008: 28). 후자의 경우, 소속 기관에서 일상 업무를 통해 전문용어를 익히고 관련 배경지식을 쌓기 때문에 해당 통역사가 속한 조직 내에서 주고받는 전문용어 및 지식에 대한 이해가 깊다.

상기 고용 형태 분류에 따르면, 우리나라 군사 통역자원들은 전부 인하우스 통역사로 분류된다. 군사 통역자원들을 인하우스 형태로 운용하는 주요 이유로 곽중철과 마승혜(2015)는 군 조직의 특성에 빚대어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첫째,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내부인사를 써야 보안유지에 유리하기 때문에 군은 프리랜스 통역사 혹은 아웃소싱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다. 둘째, 국방예산의 안전하고 저렴한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군 인하우스 통역사가 유리하다. 프리랜스 혹은 아웃소싱에 의한 통역사를 고용하면 예산집행 및 처리도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이유와 더불어 군에서도 자체 인력 개발을 통해 군사 통역을 안정적이고 좀 더 전문적으로 진행하고자 국방어학원 설립을 통해 전문적인 내용 및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인하우스 통역사에 해당 하는 군 통역사를 육성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발전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2.2 군사 통역의 특징

군사 통역은 일차원적 해석을 넘어서 한국어와 외국어, 외국어와 한국어로 그 의미와 맥락을 정확히 바꾸어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이준성 2015: 10). 특히 군사 통역 서비스가 육성되는 방식과 제공되는 장소는 여타 통역과 큰 차이가 있다(Rosado 2014). 전(前) 해군 교육사령관 손정목 예비역 중장은 군사 통역에 관해 해당 언어의 능통함보다 군 용어와 분위기에 친숙하고 정통

해야만 정확하게 의미 전달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이준성 2015: 5).

구체적으로, 조용만과 최병욱(2017)은 ①수식어 혹은 미사여구를 생략하거나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②사실과 가정에 기초하여 꼭 필요한 내용만 언급하고 여타 감정 개입이나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상상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 ③명령문, 작전계획, 예규 등 명령형 또는 지시형 문장이 주를 이루며 각종 브리핑 문장은 서술식보다는 개조식 문장을 주로 사용한다는 점 ④약 15,000여 개 정도로 추정되는 약어 또는 두문자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점 ⑤일반영어와 전혀 다른 뜻의 단어도 사용된다는 점을 군사 통역의 특징으로 분류한다(조용만과 최병욱 2017: 17).

특히 작전용어 등 군에 특수한 용어를 단기간에 준비해 발생하는 오역은 국가안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예를 들어, DEFCON은 defense와 condition, WATCHCON은 watch와 condition의 두문자를 가지고 만든 약어이다(조용만과 최병욱 2017). 군에서 사용하는 ‘surprise’는 ‘놀람’의 뜻이 아닌 ‘기습’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조용만과 최병욱 2017: 17). 또, 한미 군사 통역 간 minister와 defense의 두문자를 가지고 만든 MINDEF는 한국 국방부 장관으로 사용되지만, 미국 국방부 장관은 secretary와 defense를 갖고 SECDEF라고 불린다. 이러한 차이를 모르고 오역을 하게 되면, 상대국에 대해 외교적 결례를 범하거나 의사소통에 혼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처럼 군사 통역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일상용어와 차이가 있으며 통역사들은 통역하는 주제와 환경 등에 따라 기술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다.

예를 들어, 군사 통역자원들은 통역 시 내용과 더불어 ‘올바른 용어’, ‘올바른 문법’, ‘적절한 스타일’ 중심의 ‘형태’를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였다(박현일 2015: 164). 군사 약어 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내용 전달이라는 군사 통역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소화기’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fire extinguisher로 사용되지만 군사통역에서는 small/personal firearms로도 자주 사용된다. 또, 이동과 기동 모두 움직임을 나타내는 행동이지만, 군사 통역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단어를 ‘movement’와 ‘manuever’로 명확하게 구분한다.

2.3 우리 군의 통역자원 선발 및 양성과정

우리나라 통역자원은 각 군에서 선발하며 육군은 통역장교, 통역 준사관, 어학병, 통역군무원, 공군은 통역장교 통역 준사관, 통역병, 해군은 통역장교, 통역 준사관, 통역병으로 분류하여 운용한다(이준성 2015: 226-227). 이 글에서는 통역장교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통역병은 선발시험을 치른 이후 기초군사훈련을 거친 이후 별도의 통·번역 교육과정 없이 부대에 배치되기 때문에 우리 군의 통·번역 교육 실태를 미국과 독일의 사례와 비교하기가 어렵고 통역 준사관은 2017년 이후 2022년 현재까지 모집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통역장교들의 선발과정은 명시한 선발→양성교육→국방어학원 교육→임관의 순서를 일반적으로 따른다. 현재 모집하지 않는 통역 준사관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9장의2 통번역 준사관 인사관리에 의거하여 선발했다. 동법 제189조(선발절차) 제1항은 통역준사관의 선발절차를 “선발→양성교육→국방어학원 교육→군분류→임관순으로 시행”한다고 명시한다. 동 조에 따르면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관실에서 매년 각군 소요를 종합”하고 “선발, 양성교육, 임관식은 육군 참모총장 책임하에 실시”하며, “군분류는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관실에서 심의를 통해 분류”한다. 통역장교의 경우에도 해당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관실에서 소요종합하여 군분류를 심의·분류하는 통역 준사관들과는 달리 통역장교는 각 군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상기 과정에서 “군분류”의 과정만 제외하여 통역장교들의 선발 및 양성과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2.3.1 육군 통역장교

육군 장교는 일반적으로 육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학군사관후보생, 학사사관, 전문사관, 간부사관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육군 통역장교는 육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학군사관후보생, 학사사관과는 따로 분리하여 “전문사관”이라는 모집과정을 통해 선발한다. 전문사관은 통역장교, 재정장교, 전산장교, 법무행정장교, 군약장교, 의정장교, 간호장교, 변리사, 군의·치의장교, 수의장교, 교수(육군사관학교/육군3사관학교/간호사관학교), 5급 공채(고시 합격자), 사이

비장교로 별도로 선발한다(육군모집).

육군 통역장교의 전체 규모와 정확한 근무지는 공개되지 않지만 이들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지상작전사령부, 제2작전사령부를 포함하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oint Security Area: JSA) 등에서 근무한다. 이들은 학사학위 이상 취득예정)자로서 특정 점수 이상의 TOEIC, TEPS, TOEFL 등 공인영어점수를 지원자격으로 하며, 1차 전공평가는 ①영→한 통역평가 ②한→영 통역평가 ③영어인터뷰 평가로 구성된다. 다만, 2021년 전반기 모집까지는 영↔한 번역평가도 진행되었지만 2021년 후반기 모집부터는 번역평가는 진행되지 않는다. 육군 통역장교는 입영 후 7주간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입관 후 6주간 국방어학원에서 교육을 받는다. 육군 통역장교의 선발 및 양성과정은 <표 1>과 같다.

<표 1> 육군 통역장교의 선발 및 양성과정

분류	세부 내용														
지원 자격	- (지필평가) TOEIC 950점 이상, TEPS 526점 이상, TOEFL 114점 이상 - (말하기평가) TOEIC-S 180점 이상, TEPS-S 81점 이상, OPIc IH 이상, G-TELP Lvl. 2 이상, FLEX 말하기 227점 이상														
선발 기준	- (평가요소 및 방법) 평가요소 / 배점														
	<table border="1"> <thead> <tr> <th>분류</th> <th>1차 전공평가</th> <th>2차 면접평가</th> <th>기타</th> </tr> </thead> <tbody> <tr> <td>배점(100점)</td> <td>50점</td> <td>50점</td> <td>합·불</td> </tr> </tbody> </table>				분류	1차 전공평가	2차 면접평가	기타	배점(100점)	50점	50점	합·불			
	분류	1차 전공평가	2차 면접평가	기타											
	배점(100점)	50점	50점	합·불											
*기타: 신체검사 및 인성검사															
- (1차 전공평가) 평가내용/배점															
<table border="1"> <thead> <tr> <th>유형</th> <th>구성</th> <th>배점</th> </tr> </thead> <tbody> <tr> <td>영→한 통역</td> <td>1 문제</td> <td>20점</td> </tr> <tr> <td>한→영 통역</td> <td>1 문제</td> <td>20점</td> </tr> <tr> <td>영어 인터뷰</td> <td>-</td> <td>10점</td> </tr> </tbody> </table>				유형	구성	배점	영→한 통역	1 문제	20점	한→영 통역	1 문제	20점	영어 인터뷰	-	10점
유형	구성	배점													
영→한 통역	1 문제	20점													
한→영 통역	1 문제	20점													
영어 인터뷰	-	10점													
입관 평가	- (양성교육) 입영 후 7주간 진행 - (영어 특기교육) 입관 후 6주간 국방어학원에서 진행														

* 2022년 하반기 전문사관 선발계획 공고 및 2022년 하반기 전문사관 전공평가 계획을 저자가 재구성

2.3.2 해군 통역장교

해군 장교는 일반적으로 해군사관학교, 학사사관, 학군사관을 통해 모집한

다. 전문사관으로 별도 모집하는 육군과는 달리 해군 통역장교는 학사사관으로 포함되어 모집한다. 또한 육군 통역장교와 같이 전체적인 규모와 정확한 근무지는 공개되지 않으며 이들은 합동참모본부, 해군본부, 해군작전사령부, 제1함대사령부 등에서 근무한다.

이들 또한 여타 통역장교들과 마찬가지로 학사학위 이상 취득(예정)자로서 공인영어점수를 지원자격으로 하며, ①번역 ②인터뷰 ③통역을 1차 세부평가 항목으로 한다(대한민국 해군 2022. 8. 26). 해군 통역장교는 입영 후 약 10주간의 기초군사교육을 받고 임관을 한 이후 6주간 국방어학원에서 영어 특기교육을 실시하고 각자의 부대에 배치된다. 해군 통역장교의 선발 및 양성과정은 <표 2>와 같다.

(표 2) 해군 통역장교의 선발 및 양성과정

분류	세부내용														
지원 자격	- TOEIC 950점 이상 혹은 동일 환산점수 이상을 가진 어학성적 *환산점수 기준: 뉴텝스 428점, TOEFL 111점														
선발 기준	- (평가요소 및 방법) 평가요소 / 배점														
	<table border="1"> <thead> <tr> <th>분류</th> <th>1차</th> <th>2차</th> <th colspan="2">기타</th> </tr> </thead> <tbody> <tr> <td>배점(500점)</td> <td>300점</td> <td>200점</td> <td colspan="2">합·불</td> </tr> </tbody> </table>					분류	1차	2차	기타		배점(500점)	300점	200점	합·불	
	분류	1차	2차	기타											
	배점(500점)	300점	200점	합·불											
*기타: 신체검사 및 인성검사															
- (1차 전공평가) 평가내용/배점															
<table border="1"> <thead> <tr> <th>분류</th> <th>작문</th> <th>번역</th> <th>인터뷰</th> <th>통역</th> </tr> </thead> <tbody> <tr> <td>배점(300점)</td> <td>60점</td> <td>60점</td> <td>60점</td> <td>120점</td> </tr> </tbody> </table>					분류	작문	번역	인터뷰	통역	배점(300점)	60점	60점	60점	120점	
분류	작문	번역	인터뷰	통역											
배점(300점)	60점	60점	60점	120점											
*기타: 신체검사 및 인성검사															
임관 평가	- 입영 이후 약 10주의 기초군사교육 훈련 후 임관 - 임관 후 6주간 국방어학원 영어특기교육														

* 해군 제134기 학사사관후보생 세부모집 계획을 저자가 재구성

2.3.3 공군 통역장교

공군 장교는 일반적으로 공군사관학교, 학군사관, 학사사관을 통해 모집한다. 공군 통역장교 또한 해군과 같이 학사사관으로 포함되어 모집한다. 여타 통역장교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규모와 정확한 근무지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들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공군본부, 공군작전사령부 등에서 근무한다.

이들 또한 여타 통역장교들과 마찬가지로 학사학위 이상 취득(예정)자로서 공인영어점수를 지원자격으로 한다. ①번역 ②통역 ③면접을 통해 평가를 받으며, 2차 면접과 3차 전형은 각각 합·불 그리고 적·부 판단만을 한다(공군참모총장 2022. 9). 공군통역장교는 입영 후 약 11주간의 기본 군사교육을 받고 임관을 한 이후 3주간 국방어학원에서 영어특기교육을 실시한다. 이어, 공군통역장교는 2~3개월간 추가 특기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육군 및 해군 통역장교와 차이를 보인다. 공군통역장교의 선발 및 양성 과정은 <표 3>과 같다.

<표 3> 공군 통역장교의 선발 및 양성과정

분류	세부내용										
지원 자격	- TOEIC 950점 이상(TOEFL 111점, 뉴텡스 428점)										
선발 기준	- (1차 전형) 모집분야별 별도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분류</th> <th>번역</th> <th>통역</th> <th>면접</th> </tr> </thead> <tbody> <tr> <td>배점(100점)</td> <td>30%</td> <td>50%</td> <td>20%</td> </tr> </tbody> </table>	분류	번역	통역	면접	배점(100점)	30%	50%	20%		
분류	번역	통역	면접								
배점(100점)	30%	50%	20%								
양성 과정	- (2차 전형) 합·불										
	- (3차 전형) 결격사유 유무판단을 위한 최종선발위원회 심의										
양성 과정	- 11주간의 기본군사훈련										
	- 임관 후 3주간 국방어학원 영어특기교육										
	- 2~3개월간 추가 특기 교육										

* 공군 제150기 학사사관후보생 모집계획을 저자가 재구성

2.3.4 소결

우리 군의 육군, 해군, 공군 통역장교 선발 및 양성에 관한 종합적 사항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 4>에 정리하였다.

<표 4> 육·해·공 3군의 통역장교 선발 및 양성과정 정리

	육군	해군	공군
지원 자격	-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TOEIC 950점 이상 혹은 동일 환산점수 이상을 가진 어학성적		
모집 과정	전문사관 별도 모집	학사사관에 포함되어 기초군사훈련	
평	1차 - 영→한 통역(20점)	- 작문(60점)	- 번역(30%)

가 배 점		- 한→영 통역(20점) - 영어인터뷰(10점)	- 번역(60점) - 인터뷰(60점) - 통역(120점)	- 통역(50%) - 면접(20%)
	2차	- 신체검사 및 면접 (50점)	- 신체검사 및 면접 (200점)	- 신체검사 및 면접 - 3차 전형: 적·부
	계	100점	500점	100점
군사 훈련	양성교육 7주	기초군사훈련 약 12주	기본군사훈련 약 12주	
어학 교육	국방어학원에서 6주 교육 후 부대 배치		- 국방어학원 3주 교육 - 2~3개월간 추가특기교육	

육군, 해군, 공군 3군의 통역장교 선발 및 양성 교육을 살펴보면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통역장교의 지원자는 3군 전부 학사학위 취득(예정)자여야 하며, 토익 950점 이상 혹은 이에 준하는 점수의 공인영어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둘째, 선발방식에 있어서 육군 통역장교는 전체 평가배점 100점 중 통역과 영어인터뷰가 50점을 차지했다. 영한 및 한영 통역 각각 20점을 차지하여 40점이었으며, 영어 인터뷰가 10점을 차지하였다. 해군 통역장교 선발 배점은 전체 평가배점 500점 중 작문, 번역 인터뷰, 통역이 각각 60점, 60점, 60점, 120점을 차지하여 전체의 60%를 차지하였다. 공군은 2차 및 3차 전형을 합·불과 적·부만을 판단하며 번역 30%, 통역 50%, 면접 20%로 구성된 어학평가만을 바탕으로 통역장교를 선발하였다.

셋째, 해군과 공군 통역장교들은 학사사관에 편입되어 여타 후보생들과 함께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다. 이러한 이유로 해군과 공군은 약 10주~11주의 군사훈련을 받는다. 반면, 육군의 경우 전문사관이라는 모집과정을 별도로 신설하여 약 7주간의 훈련을 받는다.

넷째, 육군, 해군, 공군 통역장교 전부 임관 후 국방어학원에서 영어특기교육을 실시한다. 우리나라의 군 통역 교육은 합동군사대학교의 부속기관인 국방어학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과거 직무 간 훈련(On the Job Training: OJT) 형식으로 각 군에서 진행해온 군 통역사 교육의 효율성이 높지 않았고 군 통역을 담당하는 통역장교가 군사 업무에 익숙해지고 통역에 숙달이 될 때쯤이면 전역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군사 통역 교육이 기술적으로 체계적이지 못했

다는 지적 때문에 체계적인 군 통역사 양성을 위한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군 통역사를 양성하기 위해 국방어학원이 설립되었다(곽중철과 마승혜 2015: 5). 국방어학원은 “연합·합동작전, 해외 파견 임무 수행이 가능한 어학 자원 육성”을 목표로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아랍어, 인도네시아어, 터키어의 제2외국어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곽중철과 마승혜 2015: 10; 한국어교육학회 2020¹⁾).

여기서 공군 통역장교의 경우 국방어학원에서 3주 교육을 실시하고 2~3개월간 추가 특기교육을 실시한다. 공군 통역장교 설명회에 따르면, 국방어학원에서 군사약어들을 주로 암기한 이후, 추가 특기 교육을 실시하는 공군작전사령부에서 핵심 작전개념 및 기반 지식 및 통·번역 실무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 미국과 독일의 군 통역자원 운용

3.1 미국

미군은 자국군 내부적으로 통역자원을 운용하거나 계약에 의해 통역자원을 확보한다. 전자는 미군 병과 체계(Military Occupational Specialty, 이하 MOS) 09L(Interpreter/Translator)²⁾를 통해 관리된다. 후자는 미군 병력 외 현지 민간인 혹은 민간사회와의 계약을 통해 세계적인 언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3.2.1 선발

우선, 자국군 내부적으로 통역병력을 운용하는 인하우스 형태의 MOS 09L

-
- 1) 한국어교육학회에서 개제한 합동군사대학원 국방어학원 교육 세미나 논문 공모문을 참고하였음. http://koredu.org/index.php?page=view&pg=1&idx=638&hCode=BOARD&bo_idx=5&sfl=&stx= (검색일: 2022년 2월 1일).
 - 2) 미군 병과 체계(Military Occupational Specialty)는 미군 병과 식별 코드로 두 개의 숫자와 하나의 문자로 구성된다. 두 개의 숫자는 대부분 경력 관리 분야(Career Management Field)와 유사하며, 나머지 문자는 경력 분야의 세분화 또는 기능적 구분을 위한 것이다.

은 외국어를 영어로, 영어를 외국어로 통·번역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는 병사에 대한 분류 코드이다. 이들은 ‘테러와의 전쟁’을 계기로 탄생했다. ‘테러와의 전쟁’ 선언 2년 후인 2003년, 미군 현역 중 아랍어를 구사할 줄 아는 자원은 1,300명 뿐이었다(Stratil 2016: 14; The Associated Press 2003). 현지어 소통 능력과 자원이 부족했던 미군은 요르단, 카타르, 오만 등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주변국 혹은 동맹국들과 수행하는 현지 작전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다(Stratil 2016; 24-25). 이로 인해 미국의 주요 군사 지도자들은 미군의 언어 프로그램을 재평가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계기로 MOS 09L 병과를 신설하게 된 것이다(ibid.). 그 결과 MOS 09L 통역 병력의 규모는 2011년 기준 14,000명으로 확인되지만, 최근 공개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Hopper 2011).

MOS 09L의 기본 자격요건은 <표 5>와 같다.

<표 5> MOS 09L의 지원자격 (Joyner 2022)

분류	내용
연령	17세~35세 사이의 신병(enlisted)
신분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 소지 외국인
학력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검정고시 및 15개 이상의 대학 학점
신체	육군 신체검사 통과 및 신장 비례 적정 체중
기타	중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약물남용이나 심각한 경범죄 전과 보유자 등은 입대 불가
부양가족	2명 이상의 부양가족을 돌 수 없음
신용검사	과도한 부채가 있으면 탈락할 수 있고, 입대 후에도 보안허가 수준이 하락할 수 있음

3.2.3 양성과정

미국 군 인사는 물론 일부 연방정부 인사에 대한 외국어 교육은 미국 육군 훈련교리사령부(Army Training and Doctrine Command: TRADOC) 예하 국방 언어학교(Defense Language Institute, 이하 DLI) 외국어센터(Foreign Language Center)에서 진행한다. MOS 09L 통역자원은 ①군 직업적성시험 ②국방 언어 적성시험에 따른 담당 언어 지정 ③국방 언어학교 교육 ④국방 언어 능력 시험 응시의 순서로 양성교육을 받는다.

첫째, MOS 09L의 자격을 위해서 군직업적성시험(Armed Services

Vocational Aptitude Battery, 이하 ASVAB)을 치러서 5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둘째, 국방언어학교 외국어센터에서 주관하는 국방언어적성시험(Defense Language Aptitude Battery)에 응시하여, 결과에 따라 4단계 난이도 중에서 아래 <표 6>과 같이 개인 점수에 따른 담당 언어가 정해진다.

<표 6> 국방언어적성 시험에 따른 Category별 교육언어

분류(Category)	내용
I&II	프랑스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
III	히브리어, 페르시아어 파르시, 러시아어, 타갈로그어
IV	현대 표준 아랍어, 아랍-이집트어, 아랍-이라크어, 아랍-레반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파슈토어

셋째, 본인의 언어가 정해지면 국방 언어학교에서 1주간의 영어 교육 및 36~64주의 외국어 집중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외국어 집중교육은 <표 6>에 따른 분류에 따라, Category I&II는 36주, Category III는 48주, Category IV는 64주간 실시된다.

넷째, 국방언어능력시험(Defense Language Proficiency Test, 이하 DLPT)에 응시하여야 한다. DLPT는 미군과 연방정부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DLI에서 만든 시험으로, 어학 관련 MOS(linguist MOS)는 매년 해당 시험을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 실력을 유지해야 한다(DA Form 4187). 이들은 실력(skill level)에 따라 <표 7>과 같이 세분된다.

<표 7> MOS 09L의 세부 분류(Stratil 2016: 27-28).

구분	내용
MOSC 09L10	수준: 하급(low and mid-level) 수준의 통역 업무: 외국어→영어 번역, 통역/번역 운용 지원 요소 브리핑, 언어적응 및 문화적 인식지원 보조
MOSC 09L20	수준: 중급(mid-level) 수준의 통역 업무: MOSC 09L10의 임무 수행, 영어·외국어 능력 유지·개발 감독, 외국어→영어 번역, 언어적응 및 문화적 인식 훈련제공
MOSC 09L30	수준: 상급(high-level) 의전 수준의 통·번역 임무 수행 업무: MOSC 09L20 임무 수행, 번역 및 문서 검증

	비고: 비밀보안 자격 필요, 국방 언어 능력 시험 혹은 국방 언어학교에서 인증한 독해 능력 시험 통과
MOSC 09L40	업무: MOSC 09L30 임무 수행, 영어·외국어 능력 유지·개발 감독 비고: 비밀보안 자격 필요
MOSC 09L50	업무: MOSC 09L40 임무 수행, 어학 자원의 활용에 관한 자문 지원

또한, 이들은 필수훈련으로 기본전투훈련(Basic Combat Training)과 고급개인훈련(Advanced Individual Training)을 받아야 한다. 기본전투훈련은 방어 및 공격 기술, 군사사전 등 10주간의 훈련 프로그램이고 고급개인훈련은 통역 병과에 따라 개인 심화 훈련의 종류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6주 정도 진행된다.

3.2.3 계약에 의한 통역서비스 수급

미국은 MOS 09L에 속한 통역자원 외에 통역업무를 민간업체에 아웃소싱하기도 한다. 미군은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외부 민간업체에 더욱 의존하고 있다(Defense Industry Daily 2013). 미국은 통역병과 병력 총원 및 중동 및 중앙아시아 언어 전문가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 민간업체는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이민자 혹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현지인들을 통역사로 고용한다. 예컨대,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계약했던 가장 큰 번역업체는 4,500명 규모의 통역 전문가를 제공하고, 7억 달러를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Hopper 2011).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미국 정부는 비밀리에 일본 이민자들을 고용하여 태평양 전투에 필요한 통역자원을 확보했으며, 이들은 첩보를 가로채거나 일본군의 항복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Hopper 2011).

3.2 독일

독일 통역 병력은 1930년대 전쟁 대비 목적으로 양성되기 시작했다(Chalyan-Daffner 2019). 당시 통역 병력은 주로 장교들로 지원자 스스로 언어 역량을 갖춘 뒤 자원하는 방식을 통해 양성되었다. 그러나 현재 독일연방군이 필요로 하는 통역 서비스는 연방언어국을 중심으로 제공된다(Bundessprachenamt). 독일 연방언어국은 1959년 창설되어 2012년 10월 연방군 산하로 편입되었으며

매년 15만 페이지에 육박하는 번역과 2만 시간의 통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40여 개의 외국어를 담당하는 통역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방언어국의 해외파병 지역 혹은 파병 예정 지역에 대한 통역관의 선발과 양성은 물론 연방군 통역관의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독일연방군이 군사 통역을 필요로 할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한다(Snellman 2018: 8). 첫째, 자국 군대 내에서 필요한 언어 능력을 갖춘 군인을 찾는다. 둘째, 독일연방군이 인터넷(<http://www.service.bund.de/>)을 통해 구인공고를 내서 채용한다(Bundeswehr 2018: 8).

3.2.1 선발

독일연방군 내에서 선발되는 인력의 경우, Standardised Language Profile(SLP)을 통해 언어 능력이 관리된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처럼, 개인을 아웃소싱하는 경우, 이들은 연방언어국에서 시행하는 통·번역 시험을 치르게 되며 번역시험은 독일어→모국어 지문 2개, 모국어-독일어 지문 1개의 번역시험을 치르고 통역시험에는 독일어↔모국어 지문을 통역해야 한다. 번역시험의 경우 3개 중 2개의 시험을 통과해야 통역시험은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한다. 다만, 군사 통역관의 소요가 매우 긴급한 경우에만 통역시험만을 통과하더라도 군사 통역관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다(ibid.: 8-9).

이들은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들로 구성이 되는데, 군사 통역이라는 직위 자체가 대부분 본인의 계급 이하로 편성되는 경우가 많고 경력관리 및 진급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직업군인들은 지원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또, 국가 예산처리의 문제로 외부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신분 혹은 계약상의 문제가 일부 등장한다(ibid.: 9).

앞서 서술한 미국의 사례와는 달리 현재까지 독일연방군은 통·번역 업체 및 기관과 직접 계약한 사례는 없다(ibid.: 8).

3.2.2 지위

선발 과정에서 언급했듯, 독일연방군의 통역관들은 연방언어국 내에 속한 자원이거나 특정 임무를 위해 외부에서 채용되는 경우가 있다. 후자의 경우일 지라도 이들은 전부 군인의 신분으로 전환되며, 군복을 입는다. 이러한 이유는

파견되는 자원들이 제네바협약에 의거한 전투원의 지위를 통해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ibid.: 6; Steimels 2013: Interview A).

실제 모집공고를 살펴보면 연방언어국은 2019년 <표 8>과 같은 조건으로 해외 파견 대상 통역관을 선발했다.

<표 8> 연방언어국 해외파견 대상 통역관 선발 공고 (WirSindDieReserve 2019)

구분	내용
모집내용	코소보 파견(알바니아어, 세르비아어), 말리 파견(불어, 리투아니아어), 아프가니스탄 파견(다리, 팔리어), 요르단 및 이라크 파견(아랍어, 소라니어)을 위한 해당 언어 특기자
임무	통역 병력으로서 해외파병 참여
자격요건	대졸이나 동등 경력, 해당 언어의 언어적 역량, 독일 국적, 건강한 신체

3.2.3 양성과정

독일연방군의 통역관들은 기초군사훈련과 임무 투입 사전교육을 받는다.

기초군사훈련(Allgemeine Soldatische Ausbildung, 이하 ASA)은 3주간 진행되는 ASA-1과 6주간 진행되는 ASA-2로 구분된다. 다만, ASA-1은 연 2회, ASA-2는 연 4-5회만 편성되어 있어서, 이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임무배치가 6개월 이상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Bundeswehr 2018: 11).

이러한 기초군사훈련에 직접 참석한 자들은 실전 배치된 이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훈련이 크게 유용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실제 전투 현장에서는 부대 인근을 순찰 및 정찰하기도 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군인으로서 필요한 충분한 훈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ibid.: 12).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이후 군사통역관들은 약 1주일간 진행되는 임무투입 사전교육(Einsatzlandspezifische Ausbildung, 이하 ELSA)을 받는다. 즉시 작전에 투입되거나 긴급하게 해외파병 부대로 파병되는 경우 해당 교육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이들은 결국 현장에서 1주일 정도 전임자와 후임자 간 진행되는 인수인계 기간(Hand-Over/Take-Over Period; 이하 HOTO)을 통해 업무에 숙달해야 한다. 이 또한, 전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HOTO 과정도 생략될 것이다(ibid.: 13).

마지막으로, ELSA에 더해, 배치 이전에 연방언어국에서 파견 통역관들을

대상으로 사전 브리핑을 시행해준다. 약 2시간에서 4시간에 걸친 설명을 통해, 해당 임무에서 정신적 및 전문적으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는 형식으로 진행된다(ibid.).

4. 시사점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검토해본 결과 미국과 독일은 통역 서비스 아웃소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민간기업과 민간 통역사에 대한 아웃소싱을 병용하였고 독일은 제한적으로 민간 통역사만을 고용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 <표 9>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표 9> 미국과 독일의 통역자원 선발 및 양성과정 정리

분류		미국	독일
주변환경		전 세계적으로 파병부대가 다수 존재함	
선발	대상	군인, 민간인	
	시험	- 군직업적성시험(ASVAB) - 국방언어적성시험(DLAB)	- (군인) Standardised Language Profile(SLP) - (계약자) 어학, 통역시험
양성과정	군사 훈련	- 기초군사훈련(10주) - 고급개인훈련(6주)	- ASA-1 (3주) - ASA-2 (6주)
	전문 특기 교육	- 영어(1주) 교육 - 외국어 집중교육(36~64주) - 국방언어능력시험(DLPT)	- ELSA (1주) - HOTO (약1주)

4.1 군사 통역자원 운용을 위한 주변환경 요인

군사 통역에는 변화하는 국가이익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물리적 등 여러 제약요인이 존재한다. 즉, 군사 통역의 수요와 국가의 이익은 상응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냉전기 미국의 통역자원은 러시아어와 독일어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2001년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사 임무 수행이 많아지며 페르시아어와 파슈토어 전문가의 수요가 늘어났다(Hopper 2011). 따라서 군사 통역자원의 운용은 국가이익에 따른 정부의 국방전략에 따른 영향

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과 독일의 사례에서 두 가지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미국과 독일은 전구(戰區)와 작전 책임지역(Area of Responsibility)이 우리나라보다 넓다. 둘째, 미국과 독일의 통역자원은 해외파병을 보내는 병력을 중심으로 양성된다.

전 세계에 걸쳐서 군사력을 투사하는 미국은 수많은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DLI에서 제공하는 MOS 09L의 언어를 살펴보면, 주로 중동 및 동북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 통합전투사령부(Unified Combatant Command)에는 지역·영역별 통합전투사령부로 아프리카사령부, 중부사령부, 유럽사령부, 북부사령부, 인도-태평양사령부, 남부사령부가 있는 것처럼 전 세계에 걸쳐 책임지역이 있는 전투사령부를 두고 있다. 또, 미국은 약 174,000명의 인원을 해외지역으로 파병하고 있다(Defense Manpower Data Center 2021. 6. 30). 이렇듯 국방전략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인인 지정학적 이해관계와 주변환경에 따라 미군은 다양한 언어에 대한 통·번역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독일 연방언어국도 아프리카, 유럽, 중동에 걸친 작전지역에 따라 40개 이상의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로 파병을 위해 군사통역 병력을 양성한다. 독일 헌법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작전지역 외에 군사활동을 금지했었는데, 1993년 1월 14일 해외파병을 위해 개선을 승인했다(연합뉴스). 그 결과 현재 3개 대륙에 걸쳐 12개의 작전이 진행되고 있으며 약 2,700명의 병력이 해외파병된 상태다. 독일연방군은 유엔군 소속으로 레바논, 수단, 남수단, 동사하라, 예멘 등, NATO의 확고한 지원 임무(Resolute Support Mission)를 위해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하여 말리, 이라크, 레바논 등에도 파견되고 있다(Bundeswehr Website). 예컨대, 2013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수행된 임무가 독일 파견 규모 중에 가장 크며, 이 경우 독일군에는 40개의 군사 통역직위들이 있었고 450명 정도를 현지에서 직접 채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해외파병 부대가 미국과 독일만큼 넓은 영역에 걸쳐서 분산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총 14개 지역에 1,038명을 해외로 파병하고 있다(국방부 2020). 16만 명에서 18만 명을 외국에 주둔시키는 미국과 약 2,700명을 3개 대륙에 걸쳐 파병하는 독일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이다. 또한, 우리나라 군사 통역자원의 변천 배경은 한반도의 분단상태와 상호방

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에 의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상주하게 된 데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과 독일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의 상주로 인해 군사 통·번역 소요는 영어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평화를 위한 평화유지활동의 굳건한 지원국으로 군사외교를 다변화시킬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국방 교류협력 현황을 살펴보면, 군 지도급 인사 상호방문 횟수는 2015년 43회에서 2019년 110회로 늘어났으며 같은 시기 장관 국방외교활동은 27회에서 45회로 늘어났다(e-나라지표 국방 교류협력 현황). 국방정례회의의 경우에도 2015년 10월에서 2018년 33회로 늘어났다. 2019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이 수치는 2020년에 일부 감소하였지만, 일상회복으로 군사교류는 다방면으로 확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서욱 전(前) 국방부 장관은 2021년 12월 개최된 “2021년 서울 유엔 평화유지장관회의”에서 PKO(Peacekeeping Operations)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6대 공약을 발표했다(외교부-국방부 공동보도자료 2021). 이렇듯, 국제사회에서 우리 군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어학 자원 필요성이 더욱 증대할 것이며, 이러한 변화와 발전에 발맞춰 유연한 운용이 필요할 것이다.

4.2 군사 통역 서비스 아웃소싱 가능성

우선, 미국과 독일의 통역 서비스 아웃소싱은 민간 계약 및 민간군사기업 도입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미군은 민간업체의 아웃소싱을 통해 현지어를 구사하는 이민자나 영어를 구사하는 현지인을 고용하기도 하며, 특히 중동 지역에서 그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과 독일 모두 민간 통역사를 고용하여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은 한미 연합군사령부에서 한국인 통역관들을 고용하는 것처럼 현지에서 민간 통역사들을 고용한다. 또, 독일은 연방군 산하 연방언어국에서 민간인과 군인을 채용하여 교육한다.

우리나라와 군이 직면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시대’로의 진입이다. 이로 인한 군 병력자원 감소가 현실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은 2022년 올해까지 상비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기 위한 개편 작업을 해왔으며 2022년 10월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국방혁신 4.0 또한 적정 상비병력 규모를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담고자 하고 있다(허고운 2022.

7. 26). 일각에서는 현행 병역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상비병력 규모가 2040년대에는 40만 명 수준, 2050년대에는 그 아래로 떨어지리라 전망한다(장용석 2021. 12. 19). 이러한 이유로 민간 위탁 및 민간군사기업의 활용이 상비병력 감축에 대비하는 방안으로 제기된다(ibid.). 향후 군의 통역자원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따라서, 통역자원을 일부 아웃소싱하려는 시도는 군의 통역자원 부족이 현실화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군사 통역 아웃소싱의 형태는 아래 <표 10>의 형태로 추진될 수 있다. 민간 통역사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 외국인, 현지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기업을 통한 통역의 아웃소싱은 민간군사기업이 통역 기능을 지원하는 형태 혹은 전문 통·번역회사와 직접계약을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표 10> 군사 통역 서비스의 아웃소싱 구분

아웃소싱 방식	세부 계약·고용 형태
기업아웃소싱	민간군사기업이 통역 기능 지원
	전문 통·번역회사 계약
민간 통역사 고용	우리나라 국민
	외국인
	현지인

미국은 위험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현지어가 가능한 자국민과 현지인을 다수 고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또한 자국민 민간 통역사를 다수 채용하는 등 개인에게 아웃소싱을 진행했다. 또한, 이 글에서 별도로 서술하지 않지만, 일본도 방위성에 특정 행사를 위해 한시적으로 계약직 통역관을 채용하였다. 향후 우리나라 상황과 통역 소요 분야를 결정하여, 그에 적합한 고용 및 계약 형태를 취하면 될 것이다.

다만, 특이한 점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문 통·번역회사를 고용했다는 점이다. 반면, 통·번역을 위해 독일군이 회사 혹은 기업과 계약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민간군사기업의 도입을 둘러싼 일반적 쟁점으로 규제법규의 불

분명성, 정치적 책임의 악용과 규제의 어려움, 자본주의 원리에 따른 병리 현상, 민간군사기업 직원들의 윤리적 문제 등이 논의된다(최응렬, 송혜진, 오세연 2008: 348-352). 그런데도 민간군사기업은 위험지역에서 활동하는 국민 보호, 제대군인의 재사회화 증대, 글로벌 사회에서 국제경쟁력 강화 등 그 필요성 또한 강조되어 왔다(곽선조 2018: 153-154). 군사 통역 분야에서 민간군사기업의 활용이 곧바로 전투 병력의 외주화를 의미하지 않으며 통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전투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와 책임소재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어려운 분야이다. 민간군사기업의 종류도 그 기능에 따라 전투를 수행하는 군사 공급 기업, 군사 자문 및 군사훈련을 수행하는 군사 자문기업, 비살상 지원 및 조력을 하는 군사 지원기업으로 기능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곽선조 2018: 152). 군사 통역의 경우, “비살상 지원 및 조력”을 하는 군사 지원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군사 지원기업의 우선적 활용은 민간군사기업의 장기적 운용 적정성에 관한 점진적 논의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군의 통역자원은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군 조직의 일부로 내부인사를 활용해야 보안 유지에 유리하다는 점과 통역자원의 아웃소싱에 따르는 예산-행정적 문제를 이유로 인하우스 통역사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곽중철과 마승혜 2015: 11).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군 병력 감소에 따라 인하우스 군사 통역자원이 줄어들다면 아웃소싱 통역 서비스를 인하우스 군사 통역자원들과 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제기되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기밀 유지 등 보안 문제와 관련하여 민간 계약자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현지인, 한국 민간인, 한국군 병력으로 분류하여 민감정보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군은 CAT(category) 1, 2, 3으로 접근기준을 마련하여 미국 시민권을 가진 CAT 2와 CAT 3에 분류되는 자들만이 예민한 정보 기능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민간 계약자는 <표 11>의 분류에 따라 민감정보에 대한 접근을 구분하고 있으며 동 분류는 미 육군 정보보안사령부(Intelligence and Security Command)가 감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tratil 2016: 14).

〈표 11〉 민간 계약자의 민간정보에 대한 미군의 접근허용 기준 (Stratil 2016: 14)

구분	내용
CAT 1	보안 심사(Security Screening)를 통과하지 못한 현지인
CAT 2	비밀수준(Secret Level)의 심사를 통과한 미국인
CAT 3	TS/SCI 심사(Top Secret/Sensitive Compartmentalized Information)를 통과한 미국인

둘째, 우리나라 군사 통역 서비스를 아웃소싱하기 위해 요구되는 예산·행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반 사항이 미비하다. 따라서, 향후 민간을 통한 군사 통역 서비스 수급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제도 마련에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지인 민간 통역사의 고용과 처우를 둘러싼 정책적 경험이 이미 존재한다. 작년 우리나라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이송 작전을 통해 인도적 고려에 따라 우리의 인력과 자산을 투입하여 현지인들을 구출하였다(김기열 2021). 예산 확보 및 제도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과거 사례를 통해 향후 군사 통역 아웃소싱 가능성을 확인해볼 수 있다.

나아가, 정책 영역을 넘어 법제적 영역에서 2021년 7월 30일 미국에서 통과된 “2021 긴급안보 추가 세출법(Emergency Security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을 살펴볼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 철군 당시 미국에 협조한 통역사들이 살해 협박을 받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미국 연방의회는 동 법을 통과시켜 미군과 함께 일한 아프가니스탄 현지 통역사들에 대해 특별이민비자를 발급하고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으로 협박을 받는 통역사들의 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을 마련하였다. 동 법은 특별이민비자 발급 한도를 8,000명으로 상향하고 긴급 수송 및 주거 제공에 필요한 예산 5억 달러가 포함된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아웃소싱의 한 분류인 현지인 민간 통역사의 고용 및 처우를 논하는 과정에서 예산 및 정책적 관점의 접근에 대한 경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위험지역에서 우리나라가 고용하는 현지인 조력자에 대한 안전과 처우 보장을 통해 한국에 대한 신뢰와 공공성을 확보하고 유능한 인적자원을 확보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해당 사례에서 통역자원 아웃소싱의 고용 형태를 민간 통역사 및 민간군사기업을 통한 수급 등으로 확장 적용하여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미·중 패권 경쟁과 한반도의 대내외 안보 도전 속 한미동맹과 연합방위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국가안보 전략의 기초를 수행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국방부 2020). 이 글은 미국과 미군이 주둔하는 독일이 통역자원을 어떻게 선발하고 운용하는지 비교를 통해 우리 군의 통역자원 운용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했다. 이 글에서는 통역사의 유형분류, 군사 통역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 군이 현재 통역자원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살펴보았다.

우리 군 통역장교를 선발 및 양성과정을 ‘선발→양성교육→국방어학원 교육→임관’의 순으로 살펴보았다. 육군, 해군, 공군 모두 영→한, 한→영 통역 시험 및 면접을 바탕으로 평가·선발하였으며 세부 배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다. 기초군사훈련에 있어서 육군은 통역장교를 전문사관이라는 제도로 별도 모집하였으나, 해군과 공군은 이들을 학사사관에 포함시켜 군사훈련을 받았다. 다만, 임관 후 받는 어학교육의 경우, 육군과 해군 통역장교는 국방어학원에서 6주 교육 후 부대배치를 받았으나, 공군은 국방어학원에서 3주간의 교육 이후 2~3개월간 추가 특기교육을 실시했다.

미국은 미군 내부적으로 통역병력을 운용하는 MOS 09L 병과를 중심으로 군의 인하우스 통역자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민간업체와 민간 통역사들을 고용하였다. 이들은 ①군 직업적성시험 ②국방 언어적성시험에 따른 담당 언어 지정 ③국방 언어학교 교육 ④국방 언어 능력 시험을 응시하고 기초군사훈련을 마쳤다. 또, 독일은 민간인을 중심으로 연방언어국에서 통역자원을 양성하고 있으며 군인 일부를 파병 등의 목적을 위해 어학 자원을 선발한다. 이들은 ①각각 3주, 6주 동안 진행되는 두 차례의 기초군사훈련 ②임무투입 사전교육 ③인수인계 기간을 거치게 된다.

미국과 독일의 통역자원 운용사례를 통해 군사 통역자원의 운용을 위한 주변환경 요인과 통역서비스의 아웃소싱 가능성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약 17만 명의 현역 군인을 해외 파병하는 미국과 3개 대륙에 걸쳐 2,700명을 해외 파병하는 독일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1,038명을 해외파병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이다. 그러나 최근 국방 교류협력 회의의 증가, 국제 평화

유지활동 지원 확대 등 해외 군사작전의 소요에 따라 통역자원의 유연한 운용이 필요하다. 또, 의사소통을 수행하는 현재 인하우스 중심의 군사통역자원 수급 방식이 가까운 미래에 우리 사회가 마주할 군 병력 감소 이후 적용 가능할지 고려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인하우스 통역자원 운용과 아웃소싱 통역 서비스 수급을 병용해 나가고 통역 서비스의 아웃소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외국 사례를 참고하는 등 후속 교육 및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공군참모총장 (2022. 9.) 『공군 제150기 학사사관후보생 모집계획(수정)』, 2022년 10월 17일 검색. https://go.airforce.mil.kr:448/user/boardList.do?command=view&page=1&boardId=103&boardSeq=4917&id=irms_060200000000.
- 곽선조 (2018) 「민간군사기업의 법제화 필요성과 그 모델에 관한 연구」, 『융합보안논문지』 18(3): 149-161.
- 곽중철 (2009) 「프리랜스와 인하우스 통역사 통역 비교 연구—2008년 한미정상 기자회견 통역 사례연구」, 『통번역교육연구』 12(2): 1-50.
- 곽중철, 마승혜 (2015) 「한국의 군사통역 현황과 장래 교육 방향 연구」, 『통번역교육연구』 19(1): 1-19.
- 국방부 (2020) 『2020 국방백서』, 2022년 10월 17일 검색. https://www.mnd.go.kr/mnd_book/DefenseWhitePaper/2020/02_2020_mnd_contents/index.html.
- 김기열 (2021) 「미라클 작전의 성공요소와 시사점—美 중부사 한국군협조단의 임무 수행을 중심으로」, 『합참지』 90: 88-96.
- 김유나 (2008) 「통번역대학원의 교육 평가: 수업 중의 평가와 입시 평가를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6(2): 28.
- 박현일 (2015) 「한국의 군사통역 품질평가에 대한 고찰: 통역장교의 평가 결과물 보고」, 『통번역교육연구』 19(2): 159-181.
- 신동현 (2012) 「통역장교, 자이툰 부대의 윤활유」, 『PKO저널』 5: 15-16.
- 육군참모총장 (2022. 8. 1.) 『'22 하반기 전문사관 선발계획 공고』, 2022년 10

- 월 17일 검색. <https://www.goarmy.mil.kr:447/goarmy/2664/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Z29hcm15JTJGMTQyJTJGOTUxNCUyRmFydGNsVmllldy5kbyUzRg%3D%3D>.
- 육군참모총장 (2022. 9. 1.) 『‘22 하반기 전문사관 전공평가 계획』, 2022년 10월 17일 검색. <https://www.goarmy.mil.kr:447/goarmy/2664/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Z29hcm15JTJGMTQyJTJGOTY5NCUyRmFydGNsVmllldy5kbyUzRg%3D%3D>.
- 외교부-국방부 공동보도자료 (2021. 12. 8.) 『유엔 평화유지활동 강화를 위한 전 세계 국가들의 실질적 기여 결집—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장관회의의 결과』.
- 이준성 (2015) 『통역장교 입문』, 서울: 책마루.
- 조용만, 최병욱 (2017) 『Military English 군사영어』, 성남: 북코리아.
- 최응렬, 송혜진, 오세연 (2008) 「민간군사기업의 도입방향에 관한 연구」, 『시큐리티연구』 17: 337-360.
- 대한민국 해군 (2022. 8. 26.) 『해군 제134기 학사사관후보생 세부모집 계획』, 2022년 10월 17일 검색. https://www.navy.mil.kr/user/boardList.do?command=view&page=1&boardId=182&boardSeq=224758&id=navy_0509000000.
- Chalyan-Daffner, Kristine (2019) ‘Militärsprache der Bundeswehr: Übersetzungsorientierte Untersuchung mit einem Glossar in Deutsch-Russisch-Armenisch’, Master’s thesis, Ruprecht-Karls-Universität Heidelberg.
- Fernández Sanchez, María Manuela (2010) ‘Understanding the Role of Interpreting in the Peacemaking Process at the Korean Armistice Negotiations (Panmunjom 1953)’, *Journal of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Studies* 13(2): 231-249.
- Snellman, Pekka (2018) ‘Recruitment and Training of Military Interpreters in the Bundeswehr’, Thesis Paper, Bundeswehr Command and Staff College.
- Steimels, Wolfgang (2013) ‘Kontinuität im Wandel: das Bundessprachenamt als Dienstleister für die Bundeswehr und den öffentlichen Dienst’,

Fachzeitschrift f r Administration. 57(12): 266-269.

Stratil, Jiří (2016) ‘Development of Military Interpreting in the United States Army in the Afghanistan and Iraq Wars’, Master’s thesis, Filozofická fakulta Univerzity Palackého.

<인터넷 자료>

국방 교류협력 현황 (2021. 7. 21.) 「국방 교류협력 현황」, 『E-나라지표』, 2022년 10월 5일 검색.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13.

박수찬 (2014. 2. 24.) 「독일, 아프리카 포함한 해외파병 확대 추진」, 『세계일보』, 2022년 7월 12일 검색. <https://www.segye.com/newsView/20140224004081>.

연합뉴스 「독일 해외파병 개헌」, 『연합뉴스』, 2022년 10월 5일 검색. <https://www.yna.co.kr/view/IIS20050609001600999>.

육군모집 「전문사관」, 『육군모집』, 2022년 10월 17일 검색. <https://www.goarmy.mil.kr:447/goarmy/2681/subview.do>.

장용석 (2021. 12. 19.) 「‘인구절벽시대’ 군대 갈 사람이 없다… 軍 대비책은?」, 『뉴스1』, 2022년 7월 12일 검색. <https://www.news1.kr/articles/?4527562>.

정재민 (2021. 10. 19.) 「미국의 아프간 조력자, ‘난민’ 지위얻게 될까」, 『시사IN』, 2022년 7월 12일 검색.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727>.

허고운 (2022. 7. 26.) 「‘국방혁신4.0’ 기본계획 연말 완성… “AI 기반 첨단과학 기술군”」, 『뉴스1』, 2022년 10월 21일 검색. <https://www.news1.kr/articles/?4753555>.

Defense Manpower Data Center (2022. 6. 30.), ‘Number of Military and DoD Appropriated Fund(APF) Civilian Personnel’, 2022년 10월 18일 검색. <https://dwp.dmdc.osd.mil/dwp/app/dod-data-reports/workforce-reports>.

Bundessprachenamt, ‘Unterrichten. Übersetzen. Dolmetschen’, 2022년 7월 12일 검색. <https://www.bundeswehr.de/de/organisation/personal/organisation-/bundessprachenamt>.

- Bundeswehr Website, 'Bundeswehr Operations: A Colourful History', 2022년 10월 5일 검색. <https://www.bundeswehr.de/en/operations>.
- DA Form 4187, Personnel Action, Jan. 2000. 2022년 10월 17일 검색. https://www.tn.gov/content/dam/tn/military/documents/EDU_UR_4187DLPT_jan20.pdf.
- Defense Industry Daily Staff (2013. 8. 22.) 'Lend Me Your Ears: US Military Turns to Contractor Linguists', *Defense Industry Daily*, 2022년 7월 12일 검색. <https://www.defenseindustrydaily.com/lend-me-your-ears-us-military-turns-to-contractor-linguists-05934>.
- Joyner, Jeffrey (2022. 7. 8.) 'How Can I Join the U.S. Army to Be an Interpreter?', *Chron*, 2022년 10월 17일 검색. <https://work.chron.com/can-join-us-army-interpreter-24359.html>.
- Rosado, Tony (2014. 11. 10) 'Military Interpreting: For many interpreters the least known part of the profession', *The Professional Interpreter*, 2022년 7월 12일 검색. <https://rpstranslations.wordpress.com/2014/11/10/military-interpreting-for-many-interpreters-the-least-known-part-of-the-profession/>
- The Associated Press (2003. 11. 19) 'Lack of Arabic Translators Hurting U.S.-Shortage of Arabic Translators in Iraq Has Made It Harder for U.S. Soldiers to Protect Themselves', *ABC News*, 2022년 7월 12일 검색. <https://www.meforum.org/campus-watch/8622/lack-of-arabic-translators-hurting-us>.
- Hopper, Tristin (2011) 'How to Become an Army Interpreter or Translator', *howstuffworks*, 2022년 10월 17일 검색. <https://science.howstuffworks.com/military/army-careers/how-to-become-army-interpreter-translator.htm>.
- WirSindDieReserve (2019. 11. 21.) 'Als Übersetzer in den Auslandseinsatz' [As a translator on a foreign assignment], 2022년 7월 12일 검색. <https://www.reservistenverband.de/magazin-die-reserve/als-uebersetzer-in-den-auslandseinsatz>.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Employment of
Interpretation Assets in the South Korean Armed Forces:
In Comparison with the U.S. and Germany Armed Forces**

Dong Kyu Kim & Jung Yun Choi
(Joint Chiefs of Staff)

Specialized military interpreters have not been readily fostered despite their recruitment since 2002, 2001 and 1997, respectively by the Republic of Korea Army, Navy, and Air Force to support the stationing of U.S. Forces Korea. This paper provides implications for the recruitment and employment of professional military interpreters through comparing cases i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Armed Forces. The United States utilizes Military Occupational Specialty 09L, along with contracting private and corporate interpreters. German military interpreters are soldiers with required language competencies and private contractors recruited through open advertisements. Two implications were derived. Firstly, comparing the military operational theater and number of military personnel dispatched overseas, Korea's demand remained at a relatively small number. With the expansion in defensive cooperation and support for international military operations, flexible employment of military interpreters is required. Secondly, in preparation of the anticipated decline of population that will lead to a possible lack of military personnel, conducting additional studies on military interpretation outsourcing is in need.

Keywords: military interpretation, interpretation officer, US's military interpretation, Germany's military interpretation, MOS 09L, Korea Defense Language Institute

주제어: 군사통역, 통역장교, 미국 군사통역, 독일 군사통역, 미국 병과체계 09L, 국방어학원

김동규(1저자, <https://orcid.org/0000-0001-5599-4290>)

합동참모본부 전투발전부 통역장교(중위)

fly_dkkim123@naver.com

관심분야: 군사통역, 군사법령, 합동개념, 군구조

최정연(공동저자, <https://orcid.org/0000-0003-1264-8843>)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 통역장교(중위)

jyunchoi0407@naver.com

관심분야: 군사통역, 군사법령, 군사정보

논문 투고: 2022년 7월 14일

1차 심사 완료: 2022년 9월 27일

2차 심사 완료: 2022년 10월 12일

게재 확정: 2022년 10월 21일